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 : 참여 학교와 비참여 학교 아동의 발달에 대한 종단적 비교*

이봉주** · 김예성*** · 김광혁****

초 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6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주로 사업의 수행평가와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성을 검증할 만한 실증적 평가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를 사업참여 학생들의 변화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서교육청 관할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학교 아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 심리적응, 행동적응이라는 주요 발달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변화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만족도, 자존감, 우울과 같은 발달영역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와 2004년도의 발달상태를 통제한 뒤에도 사업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학교생활개선과 심리적 적응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종단분석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05-J09501)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1저자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신저자, yskim98@suwon.ac.kr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 론

1. 문제제기

1990년대 말 외환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빈곤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환경제위기는 우리사회에서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인 외환경제위기 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누구나 빈곤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그러한 대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빈곤의 직접적 원인인 낮은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까지 보충해주는 방법이다.¹⁾ 2000년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러한 소득지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빈곤의 간접적인,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하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 사업들은 바로 그러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2003년에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에 있어서도 계층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부모 세대의 계층격차가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날로 증가하는 계층간·지역간 교육비,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인해 교육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간다는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지역적 접근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1) 학습

1) 여기서 소득은 현금과 현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화·심리·정서·복지 차원을 지원하기 위해 2) 학교중심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여 3)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4)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김정원,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지원하고, 나아가 문화, 복지 등의 다차원적 영역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교육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국가적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사업초기부터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초기 8개 지역에서 2005년에는 1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06년에는 30개로 사업지역이 배가되어 전국 16개 시도 모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업의 수행평가와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만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해당 년도의 사업에 대한 운영상황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참여 학교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변화와 같은 실제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를 사업참여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서교육청 관할지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학교 아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 심리적응, 행동적응이라는 주요 발달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 학교만족도, 자존감, 우울,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이라는 7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개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를 맞아,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의 여건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고,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불평등 완화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다(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영애, 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동 개인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문화·복지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학교가 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지역 내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해결과 문제행동 예방, 학력향상, 정서발달, 심성계발, 건강증진, 방과후 교육서비스 제고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을 통해 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습능력증진, 문화활동, 심리·심성 발달지원,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4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우선,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방과후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 기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학습능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저소득층 학

생들에게 안정적인 인성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전체 문화 활성화와 시설의 확충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을 확대 시킨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 중 성장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문제가 발생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치유하고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제고하고 건강한 심성의 발달을 도모한다. 넷째,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및 건강교육을 지원한다. 부모와 학교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 강서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강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신나는 학교, 화목한 가정, 창의적인 학생,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 전략을 세우고, 학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며, 학교간 연계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강서지역의 9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수는 10,203명에 달한다. 지역내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들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 공통사업,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 학교간 또는 지역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지역청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청 공동사업, 그리고 지역내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역연계사업, 민간자원을 유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연대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 사업 시작시부터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평가들은 주로 사업의 진행상태에 대한 수행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표 1> 강서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내용

구 분	종 류	내 용
공통 사업	연속 사업	- 도서관 활성화 사업 - 방과후 교실 운영 - 교육복지실 운영 - 기초학력 부진 지원사업 -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 학교생활 지원
특색 사업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 특기적성 (음악이 흐르는 학교 만들기, 전통문화교실) - 오지캠프 (파워스쿨) - 조기등교아동 지원사업 (굿모닝 교실) - 정신건강 지원사업 (행복한 우리) - 특수학급 아동 지원사업 - 지역 축제 등
지역청 공동 사업	학교간 공동사업	- 유치원 공동사업 (생태교육) - 한강유역순례 (초등학교 공동사업)
	지역내 공동사업	- 문화 체험 - 탈북아동 지원사업 - 정신건강 지원사업 - 아동학대 예방사업 - 장애통합교육 지원사업
	지역청 사업	- 연수 (복지마인드 연수, 장애 아동 통합 교육연수, 유치원교사 연수, 정신건강 연수, 교장단 연수)
지역 연계 사업	거점센터: (복지, 문화) 지정사업 : 다양한 형태로 추진	- 문화센터 지정 : 축제지원, 동아리지원 - 복지센터 지원 : Mentor-Tutor, Home Helper Service 등 기타
지역 연대 사업	민간자원 유치사업	- 복지관, 복지법인, 사단법인 - 기업체 대응투자유치활동

사업의 시작연도인 2003년 평가시 사업의 효과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결석률과 문제행동의 감소, 수업태도 개선, 성적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었으며, 이는 사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획득한 질적 자료들에 기초한 것이었다(이혜영, 나정, 김미숙, 이광호, 김영삼, 심한기, 윤철수, 윤혜순, 2004). 200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연구 차원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문으로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증적인 효과분석은 2005년 이혜영 등(2005)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혜영 등(2005)은 심층면접을 통한 분석과 더불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일부에서 나타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학교 학생의 일부와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간 단순 비교를 통해 특기 및 적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화체험활동 기회 정도, 도서관 시설과 장서 등에서 사업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 연수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교육활동 측면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으나, 인지적 성취, 비인지적 성취, 학교와 교사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등에서는 비참여 학교와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적, 정서·심리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6년도에 실시된 평가는 중앙 연구지원센터에서 사업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시도에 제시하여 시도별로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기초하여 시도 연구지원센터가 관할 구역내 사업기관에 대한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보고서와 방문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연구 지원센터에서 이를 수합하였다. 평가 영역별 지표별로 평가위원들이 방문을 하여 관계자를 면담하는 한편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로 5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영역별 주요현황, 특기 사항, 개선 사항 등을 기술하고 기관별 총평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4년간 사업이 진행된 학교들에 대한 평가결과, 서울과 부산의 45개 초·중 사업학교 중 11개 학교는 '우수'로, 24개 학교는 '양호'로, 10개 학교는 '개선요망'으로 판정되었다. 4년간 사업을

진행한 학교들은 2년차 사업수행 학교들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 프로그램 지속성, 사업효과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증가, 학력신장, 정서순화 측면에서의 성과가 관찰되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7년 김정원 등(2007)은 서울과 부산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의 다차원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사업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들이 인식하는 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사업만족도와 학생의 변화, 학생의 학교신뢰, 학생의 학교 역할에 대한 기대, 학생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 학부모의 학교 신뢰 등 사업성과와의 관련성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의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영역에 대한 참여 희망이 매우 높았으며, 학습 영역과 복지 영역에 대한 집중지원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희망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참여 연차가 높아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의지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 결과 사업 참여 연차가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및 학업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사업관련 인력,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개념, 학교생활 및 학업태도가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들은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의 운영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정책적 제언 등 향후 사업 운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그램 운영체제, 프로그램 참여정도나 만족도와 같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인 아동들에 대한 분석도 몇 개 학교만을 선정하여 단순한 평가점수를 비교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는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주요 대상인 학생들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기반으로 3년간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아동들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SCPS) 2004-2006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로, 1차년도인 2004년에는 4학년 아동 1785사례가 조사되었고, 아동이 5학년이 된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사례를 기준으로 92.94%가 조사되었으며, 3차년도에는 86.6%인 1546사례가 조사되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훈련된 조사원들이 교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전달된 설문지에 부모가 자기기입(self-report)하고 밀봉하여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아동패널에서는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비행, 건강 등 아동의 다양한 발달지표에 대한 정보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소득 등 기본적인 가족배경 변수는 물론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환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주요 분석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참여여부이다.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가 아동의 주요발달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아동의 주요 발달지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역 중 학교적응, 심리적응, 행동적응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 측면으로는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심리적응의 측면으로는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행동적응의 측면으로는 공격성과 비행을 주요 발달지표로 설정하였다.

먼저 학업성취도는 아동교육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국어와 수학 시험(각 15점 만점)을 통해 측정되었다. 서울아동패널은 매 조사년도마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시험을 통해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에서 6학년 3년 동안의 학업성취도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교만족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학교만족도를 나타

내는 점수로 총 9문항(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신뢰도(α)는 .716, 5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신뢰도는 .75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수는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등은 Achenbach(1991)의 YSR을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동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빈곤 여부, 한부모 가족구조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아동 발달지표의 3년간 변화추이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 참여여부를 독립변수로, 아동의 발달지표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진 아동 성별, 부모학력, 가족빈곤, 가족구조 등을 통제변수로 한 회귀분석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회귀분석모형에서는 각각의 아동발달지표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3차년도(6학년 시기) 아동발달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1차년도(4학년 시기) 아동발달지표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로 설정된 아동발달지표의 초기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의 참여가 3년 후의 발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울아동패널의 11개 조사대상 학교 중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 학교 6개교와 비참여 학교 5개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6개 학교의 학생은 서울아동패널의 전체 조사대상 1785명 중 약 45%인 8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 수	변 수 정 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척도 신뢰도)		
		4학년 (04년)	5학년 (05년)	6학년 (06년)
아동의 성 (%)	여성 남성	48.0 52.0		
부모 교육 (%)	대학입학 이상 고졸이하	42.2 58.8		
가족빈곤 (%)	빈곤 비빈곤	8.6 91.4		
가족구조 (%)	한부모 가족 양부모 가족	3.7 96.3		
교육복지 지원사업(%)	참여 비참여	45.0 55.0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 정도 9문항(4점 리커트척도)	29.92 (3.74, $\alpha=.716$)	29.45 (3.60, $\alpha=.759$)	28.78 (3.58, $\alpha=.774$)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시험 성적합	19.28 (4.37)	20.41 (4.73)	22.75 (4.8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정도 10문항(4점 리커트척도)	30.04 (4.97, $\alpha=.768$)	30.59 (5.17, $\alpha=.852$)	31.07 (5.17, $\alpha=.864$)
우울/불안	CBCL 우울/불안 13문항(3점 리커트척도)	19.50 (4.78, $\alpha=.818$)	17.76 (4.34, $\alpha=.832$)	16.97 (4.06, $\alpha=.837$)
주의집중	CBCL 주의집중 11문항(3점 리커트척도)	16.17 (3.95, $\alpha=.786$)	15.24 (3.66, $\alpha=.793$)	14.57 (3.39, $\alpha=.790$)
공격성	CBCL 공격성 19문항(3점 리커트척도)	25.50 (5.07, $\alpha=.831$)	23.78 (4.32, $\alpha=.814$)	22.86 (3.88, $\alpha=.805$)
비행	CBCL 비행의 합 12문항(3점 리커트척도)	13.98 (2.04, $\alpha=.640$)	13.52 (1.70, $\alpha=.609$)	13.27 (1.48, $\alpha=.576$)

※ CBCL은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임, α 는 척도의 신뢰도 점수

※ 4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
3점 척도는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약 48%로 남성보다 적었으며, 부모교육수준은 약 58%가 고졸 이하였고 약 42%가 대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표본가구 중 욕구소득비가 1에 못 미치는 빈곤 가구는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²⁾. 가족구조는 양부모가족 약 96.3%, 한부모 가족 약 3.7%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 등 평균분석에 사용된 7가지 주요 아동발달 지표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발달지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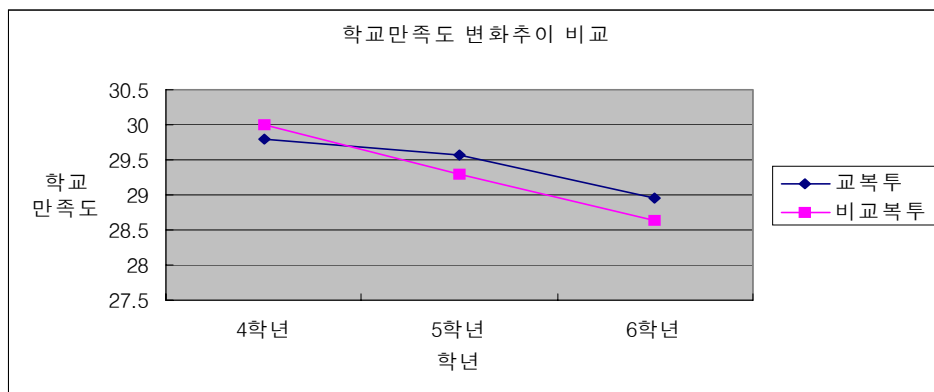
1) 학교만족도 변화추이 비교

<표 3>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학교만족도 변화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만족도는 3년 동안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에 비해 0.2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학년 시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가 6학년 시기에는 반대로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보다 0.33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학교만족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감소율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6학년 시기에는 비참여 아동보다 높은 학교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1]은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족빈곤의 경우,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 빈곤지위(poverty status)를 이용하여 분석된다. 가족소득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소득의 월 평균치(만 원 단위)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가족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산출하여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인 경우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3>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학교만족도 변화추이 비교

	학교만족도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29.80	29.56	28.96
비참여	30.01	29.36	2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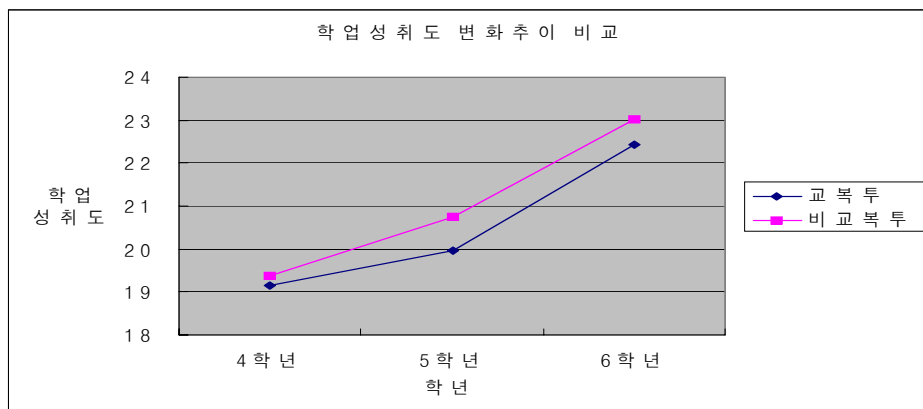
[그림 1]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학교만족도의 종단적인 변화추이

2) 학업성취도 변화추이 비교

<표 4>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학업성취도 변화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0.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5학년 시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0.79로 증가하였다가 6학년 시기 그 차이의 폭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0.57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증가율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교복투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 비교

	학업성취도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19,16	19,97	22,42
비참여	19,36	20,76	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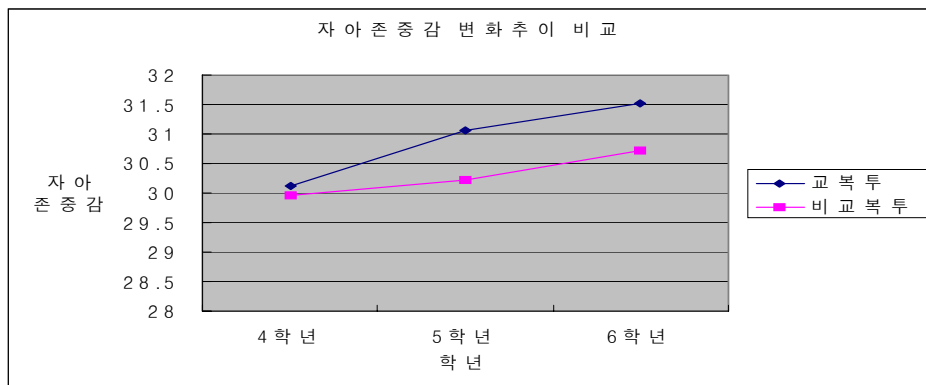
[그림 2]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추이

3)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비교

<표 5>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자아존중감 변화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5학년 시기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0.1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 시기에는 0.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6학년 시기에도 교복투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0.81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증가율이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비교

	자아존중감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30.13	31.07	31.52
비참여	29.95	30.21	3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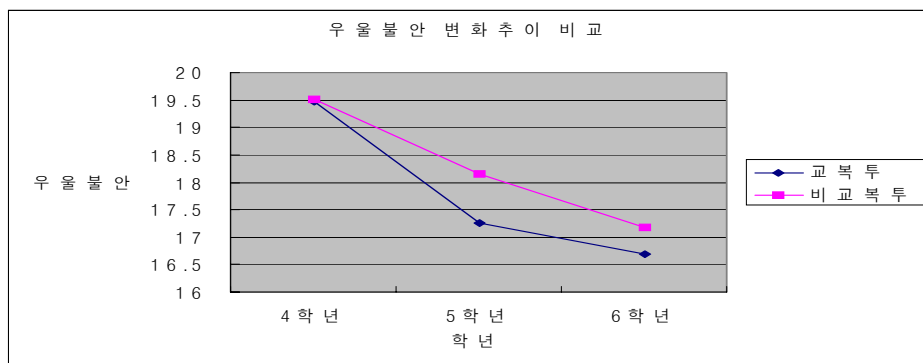
[그림 3]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추이

4) 우울불안 변화추이 비교

<표 6>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우울불안의 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3개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점수가 0.0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5학년 시기에는 1.10점이 낮게 나타나 그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6학년 시기에도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보다 우울/불안 정도가 0.48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우울불안 정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감소율이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그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우울불안 변화추이 비교

	우울불안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19.48	17.26	16.70
비참여	19.52	18.16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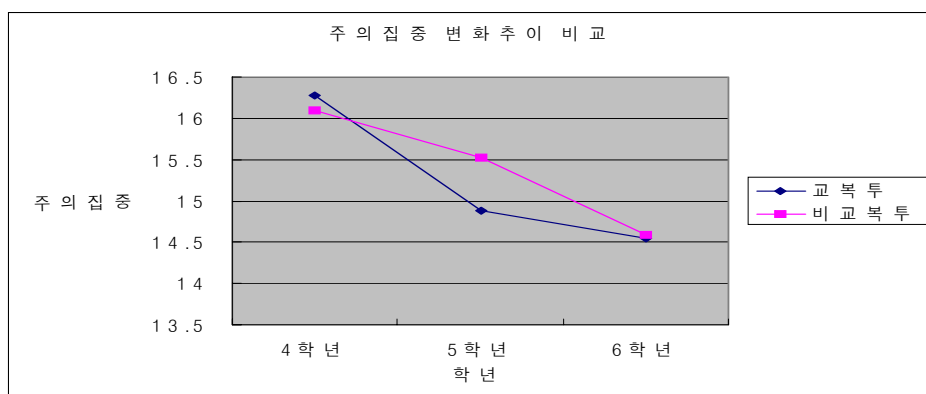
[그림 4]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우울불안의 종단적 변화추이

5) 주의집중 문제 변화추이 비교

<표 7>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주의집중 문제 변화 패턴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는 3개년 동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에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주의집중 문제의 정도가 0.17점 높아 상대적으로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시기에는 반대로 0.64점이 낮게 나타나 주의집중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6학년 시기에도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의집중 문제가 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주의집중 문제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주의집중 향상 정도가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7>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주의집중 문제 변화추이 비교

	주의집중 문제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16.27	14.88	14.54
비참여	16.10	15.52	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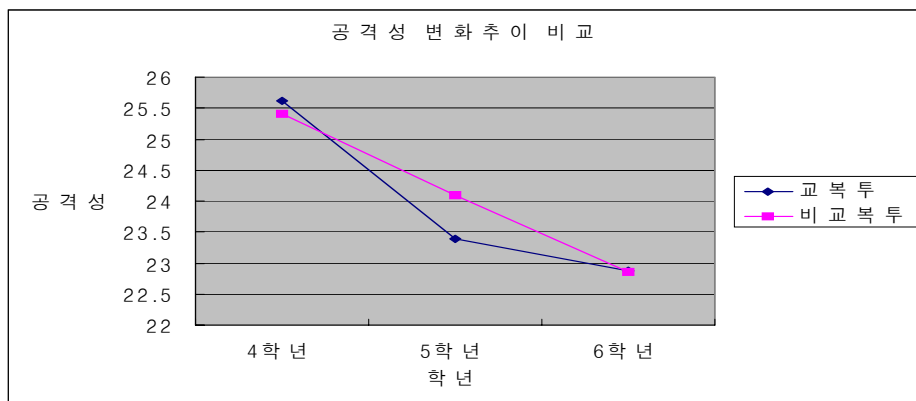
[그림 5]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주의집중 문제의 종단적 변화추이

6) 공격성의 변화추이 비교

<표 8>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의 공격성 변화 패턴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3개년 동안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0.20점 높았으나 5학년 시기에는 반대로 0.71점이 낮게 나타나 공격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6학년 시기에는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의 공격성이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전체적으로 공격성 정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감소 정도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추이 비교

	공격성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25.61	23.39	22.88
비참여	25.41	24.10	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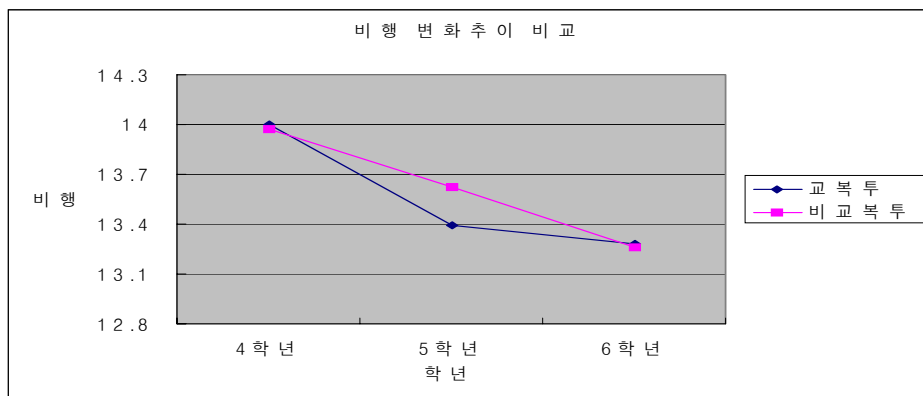
[그림 6]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공격성의 종단적인 변화추이

7) 비행의 변화추이 비교

<표 9>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3개년 동안 비행정도의 변화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비행은 3년 동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아동에 비해 비행정도가 0.0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학년 시기에는 반대로 0.23점이 낮게 나타나 비행 정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6학년 시기에는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학교 아동의 비행정도가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전체적으로 비행 정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6학년 시기에는 두 집단의 비행정도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이러한 경향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9>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비행수준의 변화추이 비교

	비행수준		
	4학년	5학년	6학년
참여	14.00	13.39	13.28
비참여	13.97	13.62	13.26



[그림 7]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비행의 종단적 변화추이

3.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의 효과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주요 아동발달 지표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단순 비교한 것이었다면, <표 10> 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회귀분석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6학년 시기의 아동발달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함과 동시에 4학년 시기의 아동발달 지표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초기치의 영향을 차단한 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아동성별, 부모학력, 가족구조, 가족빈곤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10> 교육복지사업 참여여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학교 만족도	학업 성취도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아동 성별 여성 (남성 = 0)	.876***	.033	-.029	.473*	-.160	-.025
부모학력 대학 입학 이상 (대입이상미만=0)	.608**	1.157***	.250	.132	.271	.111
가족구조 한부모 (양부모=0)	.286	-1.179*	-.436	.061	.752	.606
빈곤여부 빈곤 (비빈곤=0)	-1.966***	-.600	-.714	.571	.234	.625
교복투 참여 여부 참여 (비참여=0)	.584**	-.311	.981***	-.557**	-.159	-.143
4학년 시기 각 종속변수 상태	.368***	.623***	.435***	.323***	.372***	.267***
상수	16.963***	10.482***	17.588***	10.602***	8.524***	15.952***
F	63.848***	134.924***	59.364***	43.793***	55.12***	35.360***
R2	.214	.367	.202	.154	.187	.129

*p<. 05, **p<.01, ***p<.000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아동의 학교만족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참여가 아동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에 참여한 학교 아동의 학교만족도가 비참여 학교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은 4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수준 및 가족 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참여 아동에 비해 학교만족도가 .5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아의 학교만족도가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학력이 대입 이상인 가족의 아동이 학교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소득이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비빈곤 가족

의 아동에 비해 학교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는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부모학력이 대학입학 이상일 경우, 양친부모 가족일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소득의 경우 부모학력과 가족구조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업 참여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참여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영향력 검증은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가족관련 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뒤 나타난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참여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거의 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비빈곤 가족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크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우울/불안이 비참여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검증결과도 4학년 시기의 우울/불안 수준을 통제하고 가족 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임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참여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정도가 .55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아의 우울/불안정도가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아동의 주의집중문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주의집중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 밖에 통제변수들 역시 아동의 주의집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여부도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교복투사업 참여가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계수가 산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성을 띠지 않았다. 통제변수들 역시 아동의 주의집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아동의 비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참여 여부와 비행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아동의 비행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강서교육청 관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6개 초등학교와 참여하지 않은 5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교적응, 심리적응, 행동적응 측면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변화의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학교가 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만족도, 자존감, 우울과 같은 항목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와 2004년도의 발달상태를 통제한 뒤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업이 학교생활개선과 심리적 적응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효과성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만족도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4학년 때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나, 5학년 때에는 그 점수를 추월하여 6학년 때에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자존감 및 우울불안과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4학년 당시 거의 비슷하던 점수가 5학년 6학년에 가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 변수의 경우 4학년 때에는 사

업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학년 때에는 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의 점수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가 6학년 때에는 다시 유사한 수준으로 점수 차이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의 점수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속 유지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유대감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불안 감소와 같은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 문제 치유와 긍정적 자아개념 함양,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학습, 문화, 심리정서, 복지라는 4가지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 향상, 정신건강 증진과 같은 영역에서 직접적인 효과성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비행 등의 영역에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에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만족도, 자존감, 우울 등은 장기적으로 학업성취 증진과 문제행동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Coleman, 1988; Bradley & Crowyn, 2002), 앞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문제행동이나 학업성취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유대감과 정신건강 영역에서 뚜렷한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타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도 학교유대감, 심리상담과 같은 영역에의 개입을 유지하는 한편, 문제행동이나 학업 측면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5년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특히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들 및 가정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이러한 사업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참여 아동과 비참여 아동의 비교를 통한 효과성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평가연구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1개 지역청 단위에서의 연구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향후 전국적인 자료의 구축 및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의 확보를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계점은 비록 본 연구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비교를 바탕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교육복지사업의 순효과를 검증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관찰되지 않은(unobserved) 변수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엄밀한 실험적 연구설계(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의 적용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 현실에서는 그러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원(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과 전망.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아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지원단.
- 김정원·박인심·김주아·이봉주(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영애(2007). 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나정·김미숙·이광호·김영삼·심한기·윤철수·윤혜순(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외(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외(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모델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Achenbach, T. M. (1991).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Y. : Plenum.
- Bradley, R., & Co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 371-399.
- Coleman, J. C.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Education-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Project : A Longitudinal Comparison Study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Students

Lee, Bong-Joo* · Kim, Ye-Sung** · Kim, Kwang-Hyuk***

Even though the Education-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Project has been rapidly expanded as a showcase project for the past 6 years, there has been very little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Most evaluation studies have focused on issue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and have relied heavily on reported levels of satisfaction. In order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Seoul Child Panel Study, from 2004 to 2006, which included the students from 6 elementary schools that participated in the Project and those from 5 non-participating schools. By comparing developmental outcomes in terms of school adjustm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between the two group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roject on children's outcom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ject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outcomes. More specifically, the Project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increasing levels of school satisfaction, improving self esteem, and decreasi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won University

*** Jeon-Ju University

levels of depression among the stu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ducation-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Project has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students' school liv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Education-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 Project,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 6월 15일, 심사일 : 7월 21일, 심사완료일 : 7월 21일